나주시-학원연합회 다자녀 가정 학원비 할인

행복카드 가맹 학원 확대 협약
나주지역 학원 224곳 참여
학원마다 자율적 추가 할인 가능

나주시 학원연합회에 소속된 학원 244곳과 나주시가 손잡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원비용을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나주시와 한국학원총연합회 나주시학원연합회는 지난 30일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 학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과 권시종 연합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학원에서 다자녀 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월 1회(연 12회) 강습료 1만원을 할인받고, 학원마다 자율적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와 한국학원총연합회 나주시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할인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전남도와 농협, BC카드사가 협약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서 가맹점 이용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전국 농협을 방문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서비스업, 의류, 식품, 영화, 공연, 유아용품 등 가맹 업체 이용 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지역 가맹점 800여 곳에서는 3~20% 추가로 할인된다.

나주지역 다자녀 카드 가맹업체는 의료기관 11곳, 안경점 4곳, 이·미용업 3곳, 음식점 12곳, 기타 서비스업 7곳 등 총 37곳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민·관이 더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시종 연합회장은 "다자녀 가정 자녀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가맹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jnhappy.bccard.com/jnhappy)이나 나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11개 읍·면 소독반 여름철 해충 집중방역 돌입

강진군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 박멸을 위한 여름철 집중 방역소독에 돌입했다.

하천변, 웅덩이 등 방역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보건소는 11개 읍·면 방역 소독반과 함께 주 4~5회 이상 방역소독을 해오고 있다.

소독은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오후 6~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한다.

수풀이 많은 외곽이나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웅덩이·연못·하천·풀숲은 연막소독을 한다.

이 밖에도 우수구나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휴대용 분무소독을, 인구 밀집 지역 등은 인체에 무해한 연무 소독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강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7월 중 국비 공모 신청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40억원 투입 건립 2025년 운영

화순군이 다음 달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신청을 추진한다.

오는 7월 화순군은 국비 20억원 규모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총 40억원 사업비를 들어 오는 2025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지난 26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화순교육지원청과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과 건립 계획을 논의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화순군이 지난 26일 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센터 설립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먹거리 정책과 안정성, 복지·건강 정책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목표를 세웠다.

송성훈 화순군 농촌활력과 주무관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센터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군 지역화폐 사용 제한 주민 불편 최소화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 제한

장성군이 6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조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6월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형사업장은 가맹점 신규 가입도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간 지역 내 어디서든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농촌 지역 주민 입장에선 불편이 따르게 됐다.

특히 대도시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장성군에선 현재 등록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815곳 가운데 2%에 해당하는 44곳이 등록 취소된다.

장성군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병원, 주유소 등이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처인 은행창구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사용처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읍·면·별로 게시하고 있다.

장성군 홈페이지(누리집)에도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큰 면 단위 농촌 지역은 지침 적용을 받지 않도록 건의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장성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7월 8일 전국 청소년 랩 페스티벌

가사(歌辭)문학의 산실 담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랩 경연이 열린다.

담양군은 오는 7월8일 제5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현재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문화행사란 또는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asamunhak@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청소년이 주체가 돼 조선시대 대표적 국문학 갈래인 가사를 현대적 리듬과 접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장을 마련코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경연작품의 가사는 '한국 명품가사 100선'에 있는 작품을 활용하며, 작사와 작곡은 모두 창작품이어야 한다.

신청 시 동영상과 가사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 원, 우수상(2명) 각 100만 원, 장려상(4명) 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담양군 관계자는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랩 음악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이번 경연이 가사문학면 찰옥수수 축제와 함께 열리는 만큼 면민과 함께 가사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공무원들이 지역 농가를 찾아 양파수확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공무원들 마늘·양파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5~6월 실과별 농가 연계 집중 지원

함평군 공직자들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공직자들이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 지원 대상은 고령농, 영세농, 장애농 등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함평군은 마늘, 양파 수확이 집중되는 5~6월을 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실과별로 지역 농가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군부대, 농협 등 유관기관을 연결해 지원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축제 체질 바꾼다…발전 방안 토론회

시기별·계절별 통합 개최 등 논의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10여 개 축제를 열고 있는 장흥군이 '축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장흥군은 지난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성 군수 주재로 '축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장흥이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부흥)를 이끄는 발전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장흥군이 개최하고 있는 10여 개 축제의 현황을 진단했다.

장흥군은 일부 축제가 지역 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시기별로 분산돼 개최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군은 앞서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에 자문해 축제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후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했다.

토론회에서는 시기별·계절별 통합축제 개최방안, '장흥 삼합'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축제 개최방안, '문림의향' 장흥에 걸맞은 문학제 개최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장흥군은 이날 논의된 의견·방안에 대해 별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축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참여 행정 구현' 시민 정책 아카데미

교육·복지 등 4개 분과 의제 발굴

나주시가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정책적 역량 높이기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4회차로 구성된 '제1회 시민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정책 아카데미는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정책 의제·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자 기획됐다.

정책 분과는 ▲교육·복지 ▲문화·관광 ▲창업·일자리·소상공인 ▲농업·농촌 등 4개 분과로 아카데미 수강생 총 30명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정책 전문 특강과 멘토링, 분과 토론, 소관 부서 간담회를 통한 정책 설계와 조례 기획, 제안서 작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머리를 맞댄다.

아카데미는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3일 1회차(오후 6시 45분~밤 10시), 24일 2회차(오후 1시~오후 5시), 30일 3회차(오후 7시 ~밤 10시), 7월 1일 4회차(오후 2시~오후 4시)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여의도아카데미' 누리집(goodnations.co.kr/naju)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